“배터리 안전·성능·경제성 갖춰 세계 1위 도약”

〈2030년〉

화재시 번지지 않게 하는 기술 연구
연내 상업화 목표로 자체 개발 한창
균형 투자 ‘글로벌 원 팩토리’ 구축
철저한 현지화·전문인력 양성 가속

SK온 지동섭 사장이 “올해는 SK온이 원대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며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 사장은 20일 사내 인터뷰를 통해 “SK온은 지난 5년간 누적 수주량 및 매출 기준 약 27배라는 놀랍도록 빠른 성장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말 누적 수주 1600GWh를 달성했고 고객들이 증량 요청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SK온이 이뤄갈 파이낸셜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하며, 글로벌 1위는 단순히 먼 꿈이 아니라 ‘준비된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SK온 지동섭 사장(사진)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는 단순히 먼 꿈이 아니라 준비된 미래”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SK온

●안정적 운영·인재 확보에 총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첫 번째는 고객과 시장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최고의 성능을 내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흔한 모범답안 같지만, 기술과 조직력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지 사장의 설명이다.

지 사장은 “SK온이 그동안 시장과 고객에 증명해 온 최고의 경쟁력인 안정성 강화와 유지의 기반 위에 원가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성분 다양화를 통해 점점 다변화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글로벌 양산 체계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재의 힘인 만큼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조직 차원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팩토리’ 글로벌 사업 계획도 밝혀

SK온의 글로벌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는 ‘글로벌 원 팩토리(Global One Factory)’ 구축이다. 전 세계 공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 가능하도록 생산 설비와 제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SK온은 실제로 세계 각지에 있는 공장이 1년 만에 안정적인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췄으며, 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현지화(Localization)’다. 초기 글로벌 공장 구축시 주재원 엔지니어들의 핵심 포지션을 운영할 로컬 엔지니어들을 빠르게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장이 어느 나라에 있든 현지 인력에 의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균형(Global Balanced Capacity)’을 꼽았다. SK온은 전 세계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양질의 제품을 원하는 만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 사장은 “SK온은 이미 해외에서 여러 공장을 동시에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가동한 경험이 있다”며 “향후 건설하는 신규 공장에서도 글로벌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배터리가 가장 중요

제품 측면에서의 시장 선도 계획도 밝혔다. 지 사장의 핵심 전략은 ‘안전’이었다. “에너지밀도가 높아 가장 오래 쓸 수 있고(Longer), 가장 빠르게 충전되고(Faster), 가장 안전한(Safer) 배터리가 핵심 모토”라며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를 점점 높이면서 화재 위험 요인 또한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배터리 산업 미래에 가장 큰 차별성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 사장은 “SK의 Z-폴딩 기술(안전성을 위해 분리막 사이로 양극과 음극을 교차 적층하는 스테킹 공법)과 뛰어난 품질 관리체계로 아직까지 차량에서 단 한 건의 안전성 관련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올해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화큐셀, 호주 시작으로 세계 VPP시장 선점 나선다

〈가상발전소〉

VPP 선도국 호주 시범사업 참여
내달 주거용 에너지 솔루션 출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주거용 에너지 솔루션인 큐홈코어(Q.HOME CORE)를 3월 호주에서 출시한다.

큐홈코어는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Q.OMMAND)를 결합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이다. 큐홈코어를 이용하는 가구는 태양광 모듈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제어·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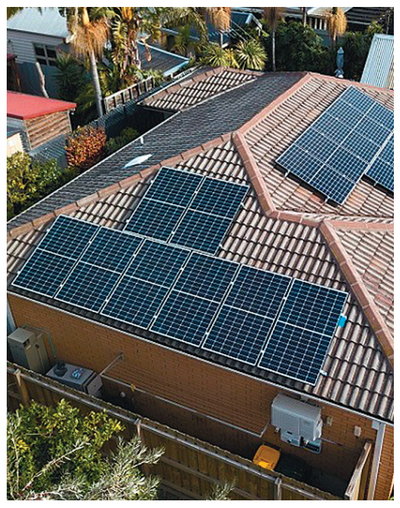
큐홈코어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가 시행하는 가상발전소(VPP) 시범사업을 통해 공개된다. VPP는 ICT 기술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 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세계 각국의 VPP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호주는 VPP 구축 선도 국가로 현재 호주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VPP를 조성 중이며 여러 주 정부가 진행하는 VPP 프로젝트가 연내 다수 예정되어 있다.

한화큐셀은 향후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호주 VPP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해 미국, 일본, 한국 시장에서의 VPP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VPP 시장 규모는 2027년말까지 연평균 약 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 VPP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원성열 기자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주택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제공 | 한화큐셀

LG엔솔 최고디지털책임자 ‘새얼굴’ 美엔디비아 출신 변경석 박사 영입



변경석 박사

LG에너지솔루션이 최고디지털책임자(CDO·전무)로 머신러닝 분야 세계적 석학인 변경석 박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변 박사는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 선도기업인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5명 미만인 ‘핵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Principle Data Scientist)’를 역임하며, 자율주행차·산업용AI·클라우드AI 관련 기술 개발을 이끌었다.

특히 변 박사는 엔비디아에서 불량 탐지 및 수율 안정을 위한 제조 지능화 솔루션 개발을 진두지휘하며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고, 자율주행차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전기·전자·통신·컴퓨터 분야 전문가 단체 IEEE(미국전기전자공학회) 시니어 멤버로 활동하며 국내외 관련 분야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스탠포드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졸업한 뒤 HP와 삼성전자 등을 거쳤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변 박사는 앞으로 CDO로서 당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실행을 주도하고, 제조지능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엔비디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공장의 스마트팩토리화 작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박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 나아가 한국 제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성열 기자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쇼룸’ 리뉴얼 오픈

롯데케미칼이 의왕사업장에 첨단소재사업의 미래 전략과 고객 맞춤 솔루션을 소개하는 쇼룸 ‘테크 앤 퓨처 홀(Tech & Future Hal)’을 리뉴얼 오픈했다.

379m² 규모에 총 4개의 공간으로 리뉴얼한 ‘테크 앤 퓨처 홀’은 롯데케미칼의 탁월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고부가 소재의 미래를 보여준다.

먼저 ‘비전 존’에서는 롯데그룹과 롯데케미칼의 소개와 함께 회사의 국내외 주요 사업을 보여준다. 중앙과 양측면의 대형 스크린이 입장부터 몰입감을 더한다.

‘솔루션 존 1’에서는 대표 및 신규 제품의 전략 용도를 소개한다. 모바일, 가전, TV, OA는 물론 항균·항바이러스 소재 등 11개의 테마로 샘플 실물을 전시했다. 샘플 주변에 터치스크린과 태블릿PC를 통해 자세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솔루션 존 2’에서는 모빌리티 용도 제품을 보여준다. 경량화, 차별화, 고기능성, 친환경 등 총 4개의 테마로 나눠 롯데케미칼의 강점을 다양한 제품 전시와 함께 소개했다. ‘솔루션 존 3’에서는 친환경 제품 등 ESG 사례, 선행디자인과 인테리어 자재 등 차별화 솔루션을 소개한다.

선행디자인 쇼룸인 ‘에이뷰(A View)’도 함께 리뉴얼 오픈했다. 에이뷰는 ‘진실된 관점으로 가치 있는 상상을 탐구하는 길’이란의 의미로, 스페셜 소재 디자인 및 솔루션을 소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3일 (수) 음력: 1월 2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다.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한다. 우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 돌입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상대 입장을 살펴 보아라.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오늘의 날씨

23일(수)

서울 0/0	-10 / 0	인천 0/0	-9 / -1
춘천 0/0	-14 / 2	강릉 0/0	-8 / 3
대전 20/0	-9 / 2	전주 30/20	-7 / 2
광주 30/30	-5 / 2	대구 20/20	-7 / 4
부산 20/10	-5 / 5	창원 20/10	-5 / 4
제주 30/30	1 / 3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7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